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의 아웃풋에 대해

— 세이난가쿠인대학과 릿쿄대학의 경우 —

尹 芝 惠
金 恩 愛^{*}

1. 설문 조사의 배경에 대해

외국어 학습에 있어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인풋과 아웃풋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풋과 아웃풋의 중요성과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는 또한 사실이다.

이번 조사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인풋과 아웃풋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인풋, 아웃풋의 적정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 인풋과 아웃풋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와 인풋과 아웃풋에 관한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학습 레벨과 학습 목적에 따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만큼, 인풋과 아웃풋의 이상적인 비율이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 중급 수업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인풋과 아웃풋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실천하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는 그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중급 학습자들의 인풋, 아웃풋의 실태조사를 통해, 배웠지만 기억에

^{*}立教大学外国語教育研究センター教授, NHK ハングルッ! ナビ講師

남아 있지 않은 인풋이 아니라, 배운 내용 중에 학습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인풋 내용인 **학습 비축량**을 실제로 얼마나 아웃풋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급 학습자들이 **머릿속의 학습 비축량(인풋)**을 실제 회화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중급 학습자 스스로가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인풋 중심의 초급 단계와 달리, 중급 학습자의 경우, 초급 단계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활용해 아웃풋을 늘려감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즐거움, 표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계인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전하는 하소연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선생님, 보면 다 알겠는데, 막상 말하려면 말이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을 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눈으로 보면 다 아는 표현인데, 제가 쓰는 한국말은 항상 같은 표현이에요.’

본고는 중급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자 본인의 인풋, 아웃풋에 대해 되짚어 볼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중급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에게도 인풋, 아웃풋에 대해 재고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수자가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인풋, 아웃풋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풋, 아웃풋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스스로의 아웃풋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아웃풋 활동에 대해 어떠한 바람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또한, 수업에 참가하는 중급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ies)**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업에서의 인풋, 아웃풋 활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2.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해

본고는 세이난가쿠인대학과 릿쿄대학의 중급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을 중급 학습자로 설정한 이유는 한국어 교육의 경우, 입문과 초급 단계에서는 주로 인풋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나, 중급 단계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점차 아웃풋 활동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학습자들이 인풋과 아웃풋을 실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입문과 초급 레벨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통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나 중급 레벨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수업만 보더라도 대학교에 따라 레벨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전공으로 한국어가 있는 대학교의 중급 레벨과 교양 과목으로만 한국어가 개설되는 대학교의 중급 레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고는 학문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으로 중급 레벨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급 수업을 듣고 있는 **학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중급 레벨에 대한 이미지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을 중급 레벨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중급 수업을 듣는 학습자 스스로가 중급 레벨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지니며, 스스로가 **중급 학습자라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자유기술식으로 이루어졌다.

세이난가쿠인대학과 릿쿄대학교의 중급 레벨 수업을 듣는 수강자들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는 수업 시간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에 대해 수업 담당자(세이난가쿠인대학은 윤지혜, 릿쿄대학은 김은애)가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 항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 항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다. 설문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응답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 10-15 분 정도 필요로 했다. 설문지는 논문 말미에 실기로 한다.

실시일: 11 월 12 일

대상자: 중급 레벨의 한국어 수업 수강자

세이난가쿠인대학 31 명.

(31 명 중, 설문 3 번과 4 번 조사에서는 22 명만 대상으로 함)

릿쿄대학 28 명.

(28 명 중, 설문 3 번과 4 번 조사에서는 22 명만 대상으로 함)

설문지 3 번과 4 번 조사에서는 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는 총 31 명 중 9 명을 제외, 릿쿄 대학의 경우는 총 28 명 중, 6 명을 제외시켰는데, 이는 답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거나, 한국에서 5 년 이상 생활한 적이 있거나, 학습 기간이 7 년 이상인 응답자들로 평균 1-2 년의 한국어 학습 기간을 지나는 다른 학생들과는 학습 배경이나 학습 기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수치화 작업에 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제외시켰다.

2.1 설문조사 대상자: 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자 학생들이 지금까지 수강한 수업과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자유기술식으로 적게 한 후, 각 수업의 실러버스와 학생들이 공부한 교재 등을 참고로 학습자들의 레벨이 중급 레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초급 1,2,3

한국어 중급 1,2

전문 한국어 A/B

전문 외국어(한국어) A/B

한국어 디스커션 강좌

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 응답자의 학습 기간은 평균 2 년 정도였다. 응답자 중에는 수강한 수업 과목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재 이름이나 학습툴에 대해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것으로 OK! 한국어 초급(세이난가쿠인대학 초급 필수 과목 교재)
한국어의 세계로 초중급편(세이난가쿠인대학 중급 레벨 수업 교재)
기초부터 배우는 한국어 강좌 중급(세이난가쿠인대학 중급 레벨 수업 교재)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읽고 쓰자Ⅱ(세이난가쿠인대학 중급 레벨 수업 교재)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듣고 말하자Ⅱ(세이난가쿠인대학 중급 레벨 수업 교재)
파랑새 한국어 상급(세이난가쿠인대학 중급 레벨 수업 교재)
한글능력검정대책 (3 급)
YouTube 등

2.2 설문조사 대상자: 릿쿄대학의 경우

릿쿄대학의 경우도 학생들이 수강한 수업 과목과 공부한 교재, 학습 기간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레벨이 중급 레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릿쿄대학의 공식적인 수업명은 조선어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한국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한국어 연습 1

한국어 기초 1, 2

한국어 종합 1, 2, 3, 4

프리티코리안(릿쿄대학 1 학년 필수 과목 초급 교재)

가나다코리안(릿쿄대학 중급 레벨 수업 교재)

한국어 스탠바이 4 (릿쿄대학 중급 레벨 수업 교재)

NEW 가나다

토픽 2(중, 상급) 완전대책

한글능력검정(4 급, 3 급)

한국에 5 년 정도 살았다. 등

학생들의 레벨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강한 수업과 교재, 그리고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업 내용과 교재와 실러버스를 참고했을 때, 중급 학습자들로 판단할 수 있다. 학습 기간에 대해서는 릿쿄대학도 세이난가쿠인대학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학습 기간은 평균 2 년 정도이나, 구성원의 균일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띤다. 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5 년-2 년 정도의 학습 기간을 가진 평균값으로 2 년인 데에 반해, 릿쿄대학의 경우는 1 년에서부터 3 년, 5 년, 7 년 등 다양한 학습 기간을 가진 구성원의 평균값으로 2 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학습 기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릿쿄대학보다 세이난가쿠인대학이 보다 균일 성을 지닌 클래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중급 레벨에 대해

여기서는 중급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급 레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자유기술식 답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이 중급 레벨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3.1 중급 레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중급 레벨은 상당히 폭넓게 인식되는 만큼 대학에 따라서 혹은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에 따라 수업을 함께 하는 구성원 간에 중급 레벨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지니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리라 본다.

3.1.1 중급 레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미지: 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

세이난가쿠인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급 레벨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자를 수정하는 정도로 가능한 학생들이 작성한 한국어 그대로를 소개하며, 일본어로 작성된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중급은 조금 아래 레벨이라 생각한다.
문법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많다.
일상회화가 가능하다.
일상회화가 가능. 해외에서도 말이 통하는 정도.
일상회화가 문제없다. 듣기, 회화가 가능한 레벨.
일상회화 정도 말할 수 있다. 듣기가 가능.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는 단어나 문법이 50% 정도인 수준.
단어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발음도 제대로 가능한 레벨
한국어로 말하면 내용을 조금 이해 가능하다.
조금 어려운 이미지.
드라마를 한국어 자막이 있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상회화 레벨. 자막없이 볼 수 있다.
일상어 이상의 레벨을 말할 수 있는 레벨.
한국에 여행갔을 때 곤란하지 않는 정도.
초등학생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도.
아는 문법과 단어로 회화와 작문이 가능하다.
일상회화가 가능하다.
일상회화를 즐길 수 있는 정도.
간단한 일상회화.
일상회화가 가능하다.
일상회화, 발음변화가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다. 드라마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일상회화가 가능하다.
간단한 문서를 읽을 수 있다.
일상회화가 가능하다.
한국에 여행을 가도 어느 정도 한국어로 회화 할 수 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안다.
한국 사람과 일상회화를 할 수 있는 이미지.

일상회화가 가능하다.

한국에 여행가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

어느 정도의 회화를 알아들을 수 있다.

문장을 술술 읽을 수 있다.

간단한 한국어를 사용한다.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수업을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의 간단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일상회화가 가능하다.

일상회화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다.

세이난가쿠인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급 레벨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일상회화나 간단한 회화가 가능하며, 한국여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수업 중에 하는 선생님의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조금 긴 문장을 쓰고 이해할 수 있고, 발음 규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중급 레벨의 척도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정도**라는 표현도 중급 레벨을 이미지하는 키워드로 주목할 만하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 어에 대해 대략, 대체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을 중급 레벨로 인식하는 듯하다.

3.1.2 중급 레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미지: 릿쿄대학의 경우

설문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릿쿄대학의 1 학년 필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며, 대학교 커리큘럼에 있어 중급 레벨이라 볼 수 있는 학습자들이다. 릿쿄대학의 경우, 자유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기술해도 괜찮다고 했으나, 한국어로 기술한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들의 자유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자를 수정하는 정도로 가능한 학생들이 작성한 한국어 그대로를 소개하며, 일본어로 작성된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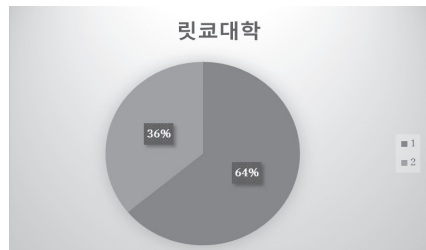
릿쿄대학의 학생들은 중급 레벨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미지.
기본 문법이나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상회화가 가능한 정도.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충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간단하게 회화할 수 있는 이미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 이야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하는 한국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선생님 말을 90%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접속사를 많이 이용하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
한국 드라마 대사를 반 이상 알아들을 수 있다.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이미지.
어려운 단어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레벨.
조금 어려운 이미지.
간단히 회화할 수 있는 레벨.
통역없이 일상회화가 가능하다.
초급보다 어렵고 상급보다 쉬운 이미지.
초급보다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많이 아는 이미지.
일상회화를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레벨.
일상회화를 할 수 있는 레벨은 중급 레벨.
쉽게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
한국 드라마를 자막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이라 생각.

릿쿄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급 레벨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일상회화를 편하게/문제없이/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이난가쿠인대학 학생들이 중급 레벨의 이미지로 든 일상회화가 가능하다는 부분과 공통되기는 하나 릿쿄대학의 경우, 일상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편하게, 문제없이, 원활하게’라는 표현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중급 레벨을 이미지하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거나, 90% 정도 이해하는 것을 중급으로 이미지 하는 등 중급 레벨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접속사를 많이 이용하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 등, 중급 레벨을 표현하는데 있어 상당히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2 학습자 스스로는 자신을 중급 레벨이라 생각하는가

세이난가쿠인대학 학생들과 릿쿄대학 학생들은 중급 레벨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고, 학습 기간 등을 참고하더라도 중급이라 볼 수 있는 학생들이었지만, 학습자 스스로는 자신을 중급 레벨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세이난가쿠인 학생의 경우는 계량조사의 대상이 된 총 22 명 중, 자신을 중급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5 명 23%였고, 중급 레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습자는 17 명 77%였다. 릿쿄대학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자신을 중급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8 명 36%였고, 중급 레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습자는 14 명 64%였다. 조사 결과, 흥미로운

점은 실제 학생들은 중급 레벨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본인은 중급 레벨이 아니라 초급 레벨이라 답한 학습자가 양쪽 대학 모두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중급 레벨의 이미지에 자신이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결과로 보인다.

세이난가쿠인대학의 77%와 릿쿄대학의 64%에 달하는 중급 레벨 학습자들이 실제로는 중급 레벨의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학습자 스스로는 자신이 중급 레벨이 아니라 아직 초급 레벨이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는 중급 학습자로서의 성취도, 만족도, 학습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갈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4. 문법 항목에 관한 인풋과 아웃풋 실태조사

문법 항목의 선정 기준은 중급 레벨 학생들이라면 이미 수업 등을 통해 배웠을 내용, 즉 인풋이 이루어졌을 학습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초급 레벨에서 이미 배웠을 학습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중급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내용들 중에서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인풋(학습 비측량)을 얼마나 아웃풋으로 연결해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습 기간과 응답자의 부정확한 응답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로 이용하기 어려운 설문지를 제외한 후, 세이난가쿠인대학 22 명, 릿쿄대학 22 명의 응답을 수치화했다.

4.1 접속표현, 4.2 관형형, 4.3 문말표현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배운 적이 없는 모르는 항목에는 「×」, 배운 적이 있는 아는 항목에는 「○」, 배운 적이 있는 아는 항목이면서 사용한 적이 있는 항목에는 「◎」, 배운 적이 있는 아는 항목이면서 자주 사용하는 항목에는 「☆」를 표시하도록 했다.

「◎」과 「☆」의 사용한 횟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대화할 때, 「◎」는 지금까지 한국어로 얘기한 장면들을 떠올렸을 때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를 이미지하며, 「☆」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주 많이 사용한다고 느끼는 경우를 이미지하면 된다고 보충 설명했다.

4.1 접속표현

대학교에서 1 년 정도 초급을 공부한 학습자일 경우, 수업 등을 통해 이미 인풋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접속표현 10 개이다. 실제 조사에서 학생들이 접속표현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미지하기 쉽게 예를 들어, ‘-(으)려고’는 ‘지금 가려고 해요.’나 ‘저도 먹으려고 해요.’와 같은 예문에 쓰이는 ‘-(으)려고’라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문지에 나열된 문법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한 후에 설문에 답했으리라 본다.

- (으)면 - (으)면서 -고 - (으)려면 -는데
- (으)니까 -아/어서 -지만 - (으)ㄴ데 - (으)려고

<표 1> 접속표현의 아웃풋

세이난가쿠인	×	○	◎	☆	합계
접속표현	38	88	66	28	220 개
	17%	40%	30%	13%	100%
	220 개, 100%				
릿쿄	×	○	◎	☆	합계
접속표현	20	53	88	59	220 개
	9%	24%	40%	27%	100%
	220 개, 100%				

접속표현 중에 아웃풋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과 「☆」인데, 그 중에서도 「☆」는 활발한 아웃풋의 수치로 의미를 지닌다 볼 수 있다. 수업 중 회화 연습할 때, 한두 번 예문에 나온 예를 읽은 경우도 포함되는 「◎」를 제외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주도형으로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진 아웃풋으로는 「☆」가 의미를 지닐 수 있기에 그 수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는 13%, 릿쿄대학의 경우 27%가 「☆」로 나타났다.

<표 2> 모르는 항목을 제외한 접속표현의 아웃풋

세이난가쿠인	×	○	◎	☆	합계
접속표현	38	88	66	28	182 개
	제외	49%	36%	15%	100%
		182 개, 100%			
릿쿄	×	○	◎	☆	합계
접속표현	20	53	88	59	200 개
	제외	26%	44%	30%	100%
		200 개, 100%			

<표 1>의 경우, 「×」는 학습자들이 배운 적이 없다거나 배운 적은 있으나 기억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모르는 항목이다. 모르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를 제외한 부분을 수치화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웃풋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보기에 <표 2>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를 한 경우, 「☆」는 세이난가쿠인대학은 15%, 릿쿄대학은 30%은 「☆」로 나타났다. 진정한 의미의 아웃풋이라 볼 수 있는 「☆」가 15%, 30%로 나타난 것에 대해 낮은 비율, 높은 비율 혹은 아웃풋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든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를 본고는 하지 않는다. 이는 본고의 목적이 인풋, 아웃풋의 적정비율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급 학습자 본인들이 자신의 인풋, 아웃풋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 보고 학습자 스스로가 본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급 레벨 학습자로서 인풋, 아웃풋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학습전략을 세워 갈 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4.2 관형형

대학교에서 1 년 정도 초급을 공부한 학습자일 경우, 수업 등을 통해 인풋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관형형이다. 관형형은 5 개에 대해 조사했다. 실제 조사에서 학생들이 관형형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미지하기 쉽게 예를 들어, ‘예쁜 카페’ ‘자주 먹는 음식’ ‘어제 먹은 밥’ ‘한국 사람인 친구’ ‘매운 거/음식’과 같은 예를 들어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문지에 나열된 문법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한 후에 설문에 답했으리라 본다. 관형형에 대해서는 동사/형용사의 관형형, 과거/현재형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아래에 제시한 형태의 관형형을 쓴 적이 있는가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L -는 -은 -인 -운

<표 3> 관형형의 아웃풋

세이난가쿠인	×	○	◎	☆	합계
관형형	21	55	21	13	110 개
	19%	50%	19%	11%	100%
	110 개, 100%				
릿쿄	×	○	◎	☆	합계
관형형	3	45	29	33	110 개
	3%	41%	26%	30%	100%
	110 개, 100%				

<표 4> 모르는 항목을 제외한 관형형의 아웃풋

세이난가쿠인	×	○	◎	☆	합계
관형형	21	55	21	13	89 개
	제외	62%	24%	14%	100%
		89 개, 100%			
릿쿄	×	○	◎	☆	합계
관형형	3	45	29	33	107 개
	제외	42%	27%	31%	100%
		107 개, 100%			

진정한 의미의 아웃풋이라 할 수 있는 「☆」에 주목했을 때 <표 3>에서는 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는 11%, 릿쿄대학의 경우 30%가 「☆」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배우지 않았거나 배워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인 모르는 항목 「×」를 제외한 <표 4>에서는 세이난가쿠인대학은 14%, 릿쿄대학은 31%가 「☆」로 나타났다. 릿쿄대학의 경우 관형형의 「☆」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수업 시간에 자주 쓰이는 관형형에 대해서는 ‘매운 거’, ‘자주 먹는 음식’ ‘어제 본 드라마’와 같이 전후의 단어와 함께 통째로 외워 한 단어처럼 외울 것을 수업 중에 강조한 결과가 아닐까 유추해 본다.

4.3 문말표현

대학교에서 1 년 정도 초급을 공부한 학습자일 경우, 수업 등을 통해 인풋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문말표현이다. 10 개의 문말표현에 대해 조사했다. 실제 조사에서 학생들이 문말표현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미지하기 쉽게 예를 들어, ‘정말 맛있네요.’ ‘어렵지 않아요.’ ‘바쁜 것 같아요’ ‘가요, 와요, 먹어요, 공부해요.’ ‘먼저 드세요’ ‘가고 싶지 않아요’와 같은 예를 들어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문지에 나열된 문법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한 후에 설문에 답했으리라 본다. 예시된 문말표현을 평서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네요	-(-으)르게요	-(-으)까요?	-고 싶어요	-(-으)ㄹ 거예요
-지 않아요	-것 같아요	-아요/어요	-(-으)세요	-고 싶지 않아요

<표 5> 문말표현의 아웃풋

세이난가쿠인	×	○	◎	☆	합계
문말표현	22	120	48	30	220
	10%	55%	22%	13%	100%
	220 개, 100%				
릿쿄	×	○	◎	☆	합계
문말표현	6	88	68	58	220
	3%	40%	31%	26%	100%
	220 개, 100%				

<표 6> 모르는 항목을 제외한 문말표현의 아웃풋

세이난가쿠인	×	○	◎	☆	합계
문말표현	22	120	48	30	198
	제외	61%	24%	15%	100%
		220 개, 100%			
릿쿄	×	○	◎	☆	합계
문말표현	6	88	68	58	214 개
	제외	41%	32%	27%	100%
		214 개, 100%			

문말표현의 경우, <표 5>에서는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는 13%, 릿쿄 대학의 경우 26%가 「☆」로 나타났고, 모르는 항목 「×」를 제외한 <표 6>에서는 세이난가쿠인 대학은 15%, 릿쿄대학은 27%가 「☆」로 나타났다. 릿쿄대학의 경우 문말표현의 「☆」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평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중급 수업을 받고 있다는 점, 초급 수업에서 배운 항목들에 대해 리스트화해 볼 것을 권하고, 그 리스트 중에 알고 있는데 실제 회화에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문말표현에 대해 의식적으로 수업내 자유회화 시간에 알고 있는 문말표현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써 보기를 강조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앞서 접속표현, 관형형, 문말표현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들이나 세이난가쿠인대학과 릿쿄대학의 전체 아웃풋에 대한 표를 제시해 두고자 한다.

<표 7> 세이난가쿠인대학의 아웃풋

세이난가쿠인	×	○	◎	☆	합계
접속표현	38	88	66	28	220 개
	17%	40%	30%	13%	100%
	220 개, 100%				
관형형	21	55	21	13	110 개
	19%	50%	19%	11%	100%
	110 개, 100%				
문말표현	22	120	48	30	220
	10%	55%	22%	13%	100%
	220 개, 100%				
전체	×	○	◎	☆	
	81	263	135	71	550
	15%	48%	24%	13%	100%
550 개, 100%					

<표 8> 모르는 항목을 제외한 세이난가쿠인대학의 아웃풋

세이난가쿠인	×	○	◎	☆	합계
접속표현	38	88	66	28	182 개
	제외	49%	36%	15%	100%
		182 개, 100%			
관형형	21	55	21	13	89 개
	제외	62%	24%	14%	100%
		89 개, 100%			
문말표현	22	120	48	30	198
	제외	61%	24%	15%	100%
		220 개, 100%			
×를 제외한 전체	×	○	◎	☆	
	81	263	135	71	469
	제외	56%	29%	15%	100%
		469 개, 100%			

세이난가쿠인대학의 경우, 접속표현, 관형형, 문말표현 전체를 봤을 때, <표 7>에서 조사대상인 총 550 개 중에서 ‘알고 있다+자주 사용하는 항목’인 「☆」는 13%이다. ‘모르는 항목’이라고 답한 ‘×’를 제외시킨 <표 8>의

「☆」는 15%이다.

항목별로 봤을 때는 접속표현이나 문말표현에 비해 관형형의 「☆」가 다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릿교대학의 아웃풋

릿교	×	○	◎	☆	합계
접속표현	20	53	88	59	220 개
	9%	24%	40%	27%	100%
	220 개, 100%				
관형형	3	45	29	33	110 개
	3%	41%	26%	30%	100%
	110 개, 100%				
문말표현	6	88	68	58	220
	3%	40%	31%	26%	100%
	220 개, 100%				
전체	×	○	◎	☆	
	29	186	185	150	550
	5%	34%	34%	27%	100%
550 개, 100%					

<표 10> 모르는 항목을 제외한 릿교대학의 아웃풋

릿교	×	○	◎	☆	합계
접속표현	20	53	88	59	200 개
	제외	26%	44%	30%	100%
		200 개, 100%			
관형형	3	45	29	33	107 개
	제외	42%	27%	31%	100%
		107 개, 100%			
문말표현	6	88	68	58	214 개
	제외	41%	32%	27%	100%
		214 개, 100%			
×를 제외한 전체	×	○	◎	☆	
	29	186	185	150	521 개
	제외	36%	35%	29%	100%
		469 개, 100%			

한편, 릿교대학의 경우, 접속표현, 관형형, 문말표현 전체를 봤을 때, <표 9>에서 조사대상인 총 550 개 중에서 ‘알고 있다+자주 사용하는 항목’인 「☆」는 27%이다. ‘모르는 항목’이라고 답한 ‘×’를 제외시킨 <표 10>의 「☆」는 29%이다. 항목별로 봤을 때 접속표현, 관형형, 문말표현의 「☆」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볼 수 있겠다.

5 중급 레벨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아웃풋 교육에 대해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급 레벨에 대한 개념적 정의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인풋, 아웃풋과 적정비율에 대해 논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실제 중급 학습자들이 중급 레벨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학습자 본인은 스스로를 중급 레벨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문, 초급 단계부터 쌓아온 학습 비축량인 인풋을 실제 얼마 만큼 아웃풋으로 활용하는가를 수치화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중급 학습자로서 인풋, 아웃풋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 ‘알고 있는데 말할 때는 안 나온다’는 답답함이나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계속 배울 수 있는 학습전략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중급 수업을 받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아웃풋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아웃풋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급 레벨이 되면 혼자서 나름의 학습 방법을 찾아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학습을 이어가는 학습자들도 많겠지만, 본고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의 중급 수업에서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전략에 대해 중급 학습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수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 중급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먼저, 본인 스스로가 중급 레벨 학습자임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주어지는 정답이 없다 하더라도 입문, 초급 레벨과 중급 레벨의 차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는 한 학기 수업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학습자에게 현재 중급 레벨임을 의식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입문, 초급을 거쳐 현재 자신이 중급 레벨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쌓여 있는 학습 비축량(인풋)을 의식하고, 축적된 인풋을 활용한 아웃풋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교수자의 관점에서

- 중급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학습 항목에 대해서 리스트화해서 시각적으로 이미 배운 것에 대해 체크하게 하고, 그 중 어떤 항목을 실제 회화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시간을 수업 중에 제공한다. 학습자들에게는 리스트 중에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항목인데, 실제 회화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 중 가장 먼저 회화에서 써 보고 싶은 항목을 우선 한두 개 순위를 정하게 한 후, 우선 순위의 항목들부터 집중적으로 수업내 자유회화 시간 등을 활용해 의식적으로 아웃풋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지도한다.
- 수업 중에 교과서 내용 이외에 프리토킹할 자유회화 시간을 제공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 중에 제공한다.
- 필자가 도입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보이는 것은 두세 명이 그룹으로 프리토킹할 시간을 3-5 분 정도 주고, 테마는 가능하면 초급 레벨에서 회화 주제로 이용했던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한후 그 대화를 스마트 폰으로 녹음한 후, 교수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항목을 학습자들에게 확인시킨다.

가령, 이번 연구처럼 문법 항목에 주목한다면, 학습자 본인이 자유회화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접속표현, 관형형, 문말표현들을 사용해 회화를 이어갔는지를 객관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본고가 제안하는 ‘아웃풋’은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며, 결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목적은 중급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의 제안이 연구 목적이 아니라, 중급 학습자 스스로가 본인들이 중급 레벨 학습자임을 의식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데 있다. 학습자도 교수자도 무엇보다도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은 중급 레벨의 수업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이 수업이 인풋이 선행되는 입문이나 초급 레벨이 아닌, 이미 상당한 학습 비축량을 지니고 있는 중급 레벨이라는 점이다. 학습자들은 본인이 중급 레벨 학습자임을 명확히 인식할 때 일정 부분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하나 자연스럽게 아웃풋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학습전략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본고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중급 학습자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아웃풋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재 자신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중급 학습자에게 필요한 보다 효과적인 아웃풋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主要参考文献

- 石坂浩一・佐々木正徳・金良淑・郭珍京・李和貞・岡村加奈 (2023) 『プリティ・コリアン』 朝日出版社
- 李潤玉・勾勾康裕・須賀井義教・睦宗均・山田恭子 (2017) 『三訂版・韓国語の世界へ入門編』 朝日出版社
- 内山政春 (2008) 『しくみで学ぶ初級朝鮮語』 白水社
- 生越直樹・曹喜澈 (2000) 『ことばの架け橋』 白帝社
- カナタ韓国語学院 (2013) 『カナタ KOREAN 初級 2』 国書刊行会
- キムミスク (2023) 『STEP☆UP 韓国語初級 1』 (監修: 佐々木正徳・朴永奎) Jリサーチ出版
- 金順玉・阪堂千津子 (2009) 『新・チャレンジ! 韓国語』 白水社
- 金順玉・阪堂千津子・崔榮美 (2017) 『ちょこっとチャレンジ! 韓国語』 白水社
- 金銀英・金英姬・崔秀蓮・尹芝惠 (2021) 『これで OK! 韓国語初級』 朝日出版社

高島淑郎（2005）『書いて覚える中級朝鮮語』白水社

野間秀樹（2007）『新・至福の朝鮮語』朝日出版社

長谷川由起子（2001）『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会話辺 1』白帝社

朴鐘厚（2021）『コツコツ韓国語文法練習帳（初級）』博英社

油谷幸利・コヨンジン（2005）『実用韓国語』白水社

2024 年 月 日 () 大学 () 年生 韓国語学習歴: () 年

韓国語学習におけるインプット・アウトプットに関するアンケート

— 中級レベルの学習者の場合 —

1. 韓国語の学習歴について書いてください。(受講した/している科目名や, 勉強した本のタイトルなど)
2. あなたが考える「中級レベル」はどのようなレベル・イメージですか。
3. あなたは「中級レベル」だと思いますか。その理由は?
「中級レベル」だと思わない場合は, どのレベルだと思いますか。その理由は?
4. 以下の韓国語のうち, 「知らない項目」には「×」を「知っている項目」には○を, 「知っている + 使ったことがある項目」には◎, 「知っている + よく使う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接続表現:

-(으)면	-(으)면서	-고	-(으)려면	-는데
-(으)니까	-아/어서	-지만	-(으)ㄴ 데	-(으)려고

連体形:

-ㄴ	-는	-은	-인	-운
----	----	----	----	----

文末表現:

-네요	-(으)ㄴ 게요	-(으)까요?	-고 싶어요
-(으)ㄴ 거예요			
-지 않아요	-것 같아요	-아요/어요	-(으)세요
-고 싶지 않아요			

5. 上記 4. の「○」「◎」「☆」の結果を踏まえた上で, 韓国語学習における「インプット・アウトプット」について思うことをご自由にお書きください。